

전국 수유시설 82% 日 이용자 10명 ↓

전국 수유시설이 3000개 넘게 설치됐지만 10곳 중 8곳은 하루 이용자가 10명이 채 안 되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1은 아바 출입을 막고 있었으며 소파나 테이블만 갖춘 채 기저귀 교환대, 냉난방기 등이 비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수유시설 3259곳을 대상으로 수유실 이용 현황과 비품 비치, 청결 및 환경 상태를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의 수유시설은 공공(다중)시설 1034곳(31.7%), 공공기관 782곳(24%), 공공청사 759곳(23.3%), 교통시설 500곳(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곳(2.6%), 민간기업 100

복지부, 첫 수유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전국 3000개 넘는 수유시설 이용 실적 저조

곳(3.1%) 등에 설치돼 있다.

93.5%인 3048곳이 내외부인 모두 사용 가능했으나, 82.3%인 2682곳은 하루 이용자가 10명 이하를 기록해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았다.

2826곳(86.7%)은 시설을 1일 1회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7일에 한 번이나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곳(7.4%)이었다.

2057곳(63.1%)은 아바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1202곳(36.9%)은 아바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설치돼 있었다.

대부분의 수유실은 비품 가운데 소파·테이블(3137곳·96.2%)을 갖췄지만 기저귀 교환대는 2363곳(72.5%), 냉난방기·정수기는 2504곳(76.8%), 수유쿠션은 1659곳(51%)에만 비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수유시설의 실내환경 중 조도는 2980곳(91.4%)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16곳(0.5%)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실내온도 및 환기상태는 2875곳(88.2%)이 적정, 38곳(1.2%)은 미흡했다. 수유실 내 바닥 등 오염관리는 2931곳

(89.9%)이 적정, 27곳(0.8%)은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국 수유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계기로 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에도 나선다. 권고안은 안내표지판 설치, 일조·채광·환기 시설, 설치비품 등 운영수칙과 위생관리수칙을 담고 있다.

전국 3259개 수유시설 위치정보는 지난 8월 문을 연 수유시설검색시스템(www.soy.us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지난 15년간 韓 입양아 4만여명...해마다 줄어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입양 아동은 총 4만3059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내·외 입양 아동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2006년까지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로 유지됐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다 국내 입양 비율이 2013년에 정점을 달한 이후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국내 입양 52.3%, 국외 입양 47.7%에서 2013년 국내 입양 74.4%, 국외 입양 25.6%를 기록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또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절한 부모를 찾는다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 24일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2017년 10월 비준 동의를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아, 남아, 연장이(만 1세 이상 아동)가 입양되는 사례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누렇게 익은 벼 추수하는 농부 17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논에서 한 농부가 콤바인으로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하고 있다.

대법원장 지시도 안 먹힌다...사법농단 수사 협조 '제지리'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임의 제출 방식을 통한 자료 확보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재차 약속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애초 이 사건 강제 수사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처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문건, 기조실장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제공했지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며 반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기각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얻지는 못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임의 제출 가

능성이 없다'는 등 사유를 대차 자료 제출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원하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 징용 사건 처리 방향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회동과 관련된 문건 제출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동을 전후해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을 거라는 게 검찰 의심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처가 작성한 다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강제 징용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연구관 문건에 행정처 검토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수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관들과 만나 수사 협조 범위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문건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라도 쥐야 할 텐데 영장을 기각할 때와 비슷한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님 말씀 이후에 행정처에서 자료를 더 줬다가 어쨌든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美 플로렌스로 18명 사망...900여명 고립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상륙한 미국 남동부에서 1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플로렌스는 14일 오후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곳곳에 홍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아직 최악의 홍수는 오지도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플로렌스는 며칠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 당국은 주민들에 이동을 금지할 것을 경고했다. 고속도로 다수 구간이 침수로 인해 폐쇄되며 윌링턴 등 일부 지역이 사실상 고립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900여명이 홍수로 인한 구조를 요청했다. 주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위봉사단체인 유나이티드 케이준 해군단은 노스캐롤라이나 윌링턴 지역에서 200여명을 구했으며, 이후 윌링턴 지역으로 구조 지역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델리스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통나무가 이동 가옥으로 떨어지며 3개월된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커쇼 카운티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트럭을 운전하는 남성이 지지대를 틀어막아 사망하는 등 18명이 숨졌다.

기상예보관에 따르면 18일 오후까지 최대 15c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다.

플로렌스는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욕으로 이동하며 5~10c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 망쿳 강타 필리핀, 사망자 100명 넘을 듯

슈퍼 태풍 망쿳이 휩쓸고 간 필리핀에서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사망자는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 매체인 필리핀 더스타 및 래플러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PNP)은 17일 현재 태풍 망쿳으로 6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 1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사상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벵게트 주 이토겐에서 16일 쪽으로 산사태가 발생, 흩더미가 광부 합숙소를 덮치면서 32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매몰됐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으로, 빅토리오 필리핀 이토겐 시장은 최소 사망자가 1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조 대원들은 매몰된 광부 약 30여명을 구조했으며, 구조작업을 벌이던 대원 2명이 이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망쿳은 올해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규모로, 전날 오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을 강타한 후 오후 이 지역을 빠져나가 홍콩 및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했다.

英 솔즈베리서 2명 독극물 중독 의심 증세

러시아의 전직 이중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가 독극물 노비축에 중독됐던 영국 솔즈베리의 한 식당에서 16일 밤(현지시간) 2명이 병증을 나타냄에 따라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고 위기대응팀을 불렀다고 월트셔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솔즈베리에서는 지난 3월 스크리팔 부녀가 중독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이후 수개월 간 격리 시설이 운영되면서 방호복을 갖춘 임은 요원들이 증거 수집 활동을 펼쳤다. 6월에도 남녀 한 쌍이 스크리팔이 중독됐던 옛 소련제 독극물 노비초크 중독 증상을 나타내 44살의 여성 던 스텤티지가 목숨을 잃어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16일 솔즈베리의 프레조 식당에서 병증을 보인 남녀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월트셔 경찰은 성명을 발표해 "예방조치로서 식당과 주변 도로들을 봉쇄하고, 요원들이 이를 남녀에게 병증을 나타내게 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크리스탈과 그의 딸 율리아를 중독시킨 혐의로 러시아 남성 2명을 검거 기소했다. 알렉산데르 페트로프와 투슬란 보쉬로프라는 남성 2명은 러시아 정보기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이 운영되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검진

1577-1000